

COVID-19 위기상황이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이인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The Effect of COVID-19 on Depress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In-Jeong Lee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가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차를 중심으로 검증하여 청년세대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복지실태조사(2020) 자료에서 남성 청년 198명, 여성 청년 218명을 표본 추출하였고, COVID-19 영향요인으로 고용, 소득, 감정의 세 영역에서의 변화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는 청년세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성(gender)에 따라 COVID-19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차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 청년들의 우울 대응방안을 위한 임상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 청년, 우울, 성차, COVID-19, 1인 가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and intervene in depression of the young adult by examining the effect of COVID-19 on depress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198 male and 218 female young adults were sampled from the Seoul Welfare Survey(2020) and data were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gative changes in employment, income, and emotions due to Coron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young people. And the effects of COVID-19 sub-factors we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ased on result,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managing with depression among youth in our society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COVID-19.

Key Words : Convergence, Youth, Gender difference, Depression, COVID-19, Single-Person Households

1. 서론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 봉쇄(lock-down)를 가져온 COVID-19는 강한 전파력과 높은 사망률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체에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켰다. 백신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극복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며 COVID-19 위기 상황은 장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등 사회불안정성이 높아졌고, 대면적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고립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화하였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COVID-19는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무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회 전체가 침체된 우울을 경험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COVID-19 상황이 일부 사람들의 일탈과 방심이나 예상치 못했던 변이들이 나타나면서 우울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 무력감과 압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말이 속속 등장했다[1]. 이들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COVID-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COVID-19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 국민건강보험공단(2021)에 의하면 COVID-19 상황이 시작된 2020년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101만 6,727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3].

이처럼 COVID-19로 우리 사회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가운데 청년세대가 받은 충격은 더 크고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2020)는 'COVID-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청년세대의 우울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아 청년층의 COVID-19로 인한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4]. 이러한 청년의 우울은 COVID-19에 영향을 받은 여러 사회 지표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2021)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통계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실업률이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 5월 6.1%이었으나 2021년 5월에 12.6%로 급증하였고, 실업자 수도 37.7만 명에서 46.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5]. COVID-19 여파로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리며 '청년실업 팬데믹'[6] 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겪어내고 있다. 이러한 고용여건의 악화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같은 삶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7]. 이러한 COVID-19의 암울한 사회적 상황에서 청년의 우울은 삶을 피폐하게 하며 심한 경우 자살, 동반자살 등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우울은 청년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 세대, 고령 세대까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8]. 그렇기에 현재 COVID-19 지속상황에서 청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924만 세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9]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청년이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 추세이다[10]. 서울청년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20대 청년의 1인 가구 비율이 5명 중 1명(19.2%)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1인 가구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 위험이 크고 특히 직장,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안부를 물을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COVID-19 이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회복력을 저하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11]. 성미애 외(2020)는 COVID-19로 1인 가구의 근로시간, 소득,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변화가 초래되어 적응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12]. 이처럼 COVID-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약화하면서 1인 가구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해 현재의 COVID-19 위기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고 이들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자산 수준[13], 실업[7] 주거환경[14], 부채 부담[15]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양혜진(2020)은 COVID-19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의 자아 탄력성에 따른 우울감, 심리 정서 차이를 검토하여[16] 관련 이해의 폭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COVID-19 관련 요인이 1인 가구인 청년의 우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어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가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청년 우울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의 성차(gender difference)를 고려할 것이다. 사회

가 성에 따라 기대하는 규범과 역할이 다르고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COVID-19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집단 간 우울 수준과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7]. 그러므로 성차를 고려하여 청년의 우울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단편적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17]. 이를 통해 COVID-19 시기에 청년이 겪는 우울을 돕는 섬세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성차를 고려하여 COVID-19 상황이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 서울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컴퓨터 활용 가구 방문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COVID-19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위기상황을 직면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이루어져 상황반영 가능성이 크고, 청년 1인 가구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참여자 33,027명 중 단독가구라고 답한 사람 1,009명을 1차 추출하였고, 이중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총 416명(남성:198, 여성: 21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종속 변인은 우울이며, 독립변인은 COVID-19 위기 상황 요인을 고용, 소득, 감정의 변화로 구성하였다. 통제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 우울

우울은 CESD-11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우

울한 감정을 경험했는지를 묻는다. '극히 드물다' 1점부터 '대부분 그랬다'의 4점의 점수를 가진다. 이를 0~3으로 재코딩하고, 11개 문항의 점수를 더한 우울 총점에 20/11을 곱하여 6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ESD-11의 Cronbach's α 값은 0.825이었다.

2.1.2 COVID-19 위기상황 요인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한 COVID-19 위기상황 요인으로 COVID-19로 발생한 소득, 고용, 감정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소득은 COVID-19로 인한 소득의 변화를 묻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이는 '많이 감소'의 1점부터 '많이 증가'의 5점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고용변화는 COVID-19로 인한 고용변화를 묻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OVID-19 이전과 변동 없음은 0, 실직, 휴직 등의 고용 상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감정변화 변인은 COVID-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정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감정이 변화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이 변인은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할 수 있어 종속 변인인 우울과는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2.1.3 통제요인

통제요인으로 연령, 학력, 혼자 생활한 기간, 근로 여부, 월평균 소득, 과부담 부채, 주관적 계층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사회적 요인으로 연령, 학력, 근로 여부, 월평균 소득을 설정하였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고용에서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18] 전문대졸 이하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으며 전문대졸 이하가 0, 4년제 재학 이상을 1로 하였다. 근로 여부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0,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청년층의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15]를 토대로 과부담 부채를 투입하였다. 청년이 인지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복 등 청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8]를 토대로 주관적 계층 인식을 투입하였으며 이 변수는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상상

1점부터 '하하' 6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을 의미한다. 1인 가구 청년일지라도 원가족과의 관계 만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토대로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19], 이는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매우 불만족'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변수가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남녀 집단 간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우울 영향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남성의 평균연령은 28.06세(표준편차: 3.01)였고, 여성은 26.88세(표준편차: 3.37)이었다. 교육은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남성 139명, 여성 149명). 고용 상태는 상근직이 남성 140명(70.9%), 여성 159명(73.2%)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남성 평균 225.16만원(표준편차: 81.33), 여성은 평균 206.15만원(표준편차: 67.94)이었다. 1인 가구로 혼자 생활한 기간은 남성이 평균 45.94개월(표준편차: 34.53), 여성 평균 53.50개월(표준편차: 43.98)이었다.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 주요 변수를 기술 통계한 결과 종속변수인 우울은 남성의 평균이 7.60(표준편차: 8.03)으로 여성보다 높았으나(평균 7.19, 표준편차: 7.27))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은 남성이 28.06(표준편차: 3.01)으로 여성 26.88(표준편차: 3.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3.766, p<.01$). 월평균 소득은 남성의 평균이 225.16만원(표준편차: 225.16)으로 여성 평균 206.15만원(표준편차: 67.9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2.573, p<0.05$). 1인 가구로 혼자 생활한 기간은 남성이 46.94개월(표준편차 34.53), 여성이 53.50개월(43.98)로 여성이 더 기간이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부담 부채는 남성이 76791.42(표준편차 3.61), 여성이 68287.98(표준편차: 2.46)로 남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계층 인식은 여성이 4.92(표준편차: 0.82)로 남성의 평균 4.81(표준편차: 0.74)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남성이 평균 3.58(표준편차: 0.73)로 여성 평균 3.49(표준편차: 0.61)로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 요인의 하위요인인 고용에서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 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남성: .135, 여성: .136), 수입의 변화에서도 여성의 평균 2.91(표준편차: 0.28)로 남성의 2.86(표준편차: 0.46)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감정에서의 변화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여성: 47.65, 남성: 46.9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ale (N=198)		Female (N=218)	
		N	%	N	%
Age	19-24	13	6.5	37	17.0
	25-29	128	64.6	137	63.0
	30-35	57	28.9	44	20.0
	Mean(SD)	28.06(3.01)		26.88(3.37)	
Education	High School	12	6.2	16	7.5
	two-year college	36	18.1	41	19.0
	University	139	70.1	149	68.5
	Graduate School	11	5.6	11	4.9
Employment	Regular Wage Worker	140	70.9	159	73.2
	Temporary Wage Worker	24	12.0	11	5.0
	Daily Wage Worker	0	0.0	9	4.3
	Self-ownership without Employee	1	0.7	0	0.0
	Unemployed	33	16.4	38	17.3
Monthly Income	~1 million won	6	3.0	8	3.8
	1.01~2 million won	82	41.6	107	49.1
	2.01~3 million won	83	42.0	85	39.2
	3.01~5 million won	26	12.9	17	7.8
	5.01 million~	1	0.5	0	0.0
Mean(SD)	225.16(81.33)		206.15(67.94)		
Duration of living alone	~12 months	5	2.4	18	8.1
	13-36 months	107	54.2	82	37.5
	37-60 months	47	24.0	44	20.2
	61-120 months	33	16.9	62	28.4
	121 month~	5	2.5	13	5.8
Mean(SD)	45.94(34.53)		53.50(43.98)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Variable	Gender	Min.	Max.	Mean	SD	t value	
Depression	Male	0	34.55	7.60	8.03	-.553	
	Female	0	27.27	7.19	7.27		
Age	Male	19	34	28.06	3.01	-3.766***	
	Female	21	34	26.88	3.37		
Monthly income	Male	100	613.33	225.16	81.33	-2.573*	
	Female	83.33	416.67	206.15	67.94		
Duration of living alone	Male	12	246.0	45.94	34.53	1.935	
	Female	10	241.0	53.50	43.98		
Overburdened debt	Male	0	1960000.00	76791.42	3.61	-.285	
	Female	0	1445765.76	68287.98	2.46		
Subjective social class	Male	3	6	4.81	.74	1.364	
	Female	3	6	4.92	.8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ale	1	5	3.58	.73	-1.416	
	Female	2	5	3.49	.61		
Psycho-social changes due to COVID-19	Changes in Employment	Male	0	1	.135	.34	.031
		Female	0	1	.136	.34	
	Changes in Income	Male	1	4	2.86	.46	1.337
		Female	1	3	2.91	.28	
	Changes in Emotion	Male	10	80.0	46.94	12.84	-.553
		Female	6	100	47.65	14.95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078	.407**	.284**	-.567**	-.231**	-.122	.036	.081	-.091	-.008
2	-.039	1	.071	.213**	-.587**	-.006	.121	-.211**	.056	.159*	-.216**
3	.403**	-.052	1	-.015	-.227**	-.340**	.058	.060	.045	-.251**	-.399**
4	.335**	.103	-.170*	1	-.058	-.128	-.234**	-.085	.060	.176*	-.055
5	-.366**	.150	-.239**	-.178*	1	.347**	.076	-.090	.057	-.097	.208**
6	-.067	-.085	-.205**	.100	.194*	1	-.038	.132	-.109	-.143	.361**
7	.075	.148*	.144*	.094	-.201**	.010	1	.234**	.358	.089	-.517**
8	.051	-.100	.024	-.070	-.028	.153*	.098	1	-.617**	-.557**	.394**
9	-.020	.125	-.014	.101	-.021	-.000	-.142	-.711**	1	.359**	-.505**
10	.148	-.226**	.155*	-.023	-.198**	.085	-.015	-.095	.211	1	-.258**
11	-.214**	.012	-.221**	-.022	.595**	-.211**	-.378**	.203**	-.248**	-.285**	1

1. Age, 2. education(†), 3. monthly income, 4. Duration of living alone 5. Overburdened debt, 6. Subjective social class 7.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8. Changes in Employment due to COVID-19, 9. Changes in Income due to COVID-19, 10. Emotional change due to COVID-19, 11. Depression

* p<.05, **p<.01

† dummy variable(reference group: education(below two-year college).

Note: The upper diagonal triangular part of the table is the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male.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of depression in single-person youth household

		Model 1		Model 2	
		Male(N=198)	Female(N=218)	Male(N=198)	Female(N=218)
		β	β	β	β
Control Variable	Age	.357***	-.029	.345***	-.040
	Education †	-.059	.007	-.082	.000
	Monthly income	-.367***	-.064	-.301***	-.011
	Overburdened debt	.299***	.485***	.366***	.452***
	Duration of living alone	.319***	.021	.283***	.020
	Subjective social class	-.182**	-.137*	-.089	-.175*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539***	-.270***	-.391***	-.336***
Covid-19 Factor	Changes in Employment due to COVID-19			.145*	.189*
	Changes in Income due to COVID-19			-.290***	-.090
	Emotional Change due to COVID-19			.012	-.173**
constant		3.961	14.876**	14.794*	25.688**
R ²		.582	.454	.696	.560
adj.R ²		.564	.434	.677	.536
F		32.231***	36.501***	22.216***	23.414***
R ² change		.585***	.454***	.115***	.108***

* p<0.5, **p<.01, ***p<.001

†dummy variable(reference group: education(below two-year college),

3.4 연구모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해 COVID-19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한 통제 변인으로 Model 1을 구성하였고, Model 2는 COVID-19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인 고용, 소득, 감정에서의 변화를 하위요인으로 투입하여 구성하였다. 청년 우울에 대한 Model 1의 설명력은 남성이 58.2%(R²=0.582, adj.R²=0.564) 여성이 45.4%(R²=0.454, adj.R²=0.443)이었다. Model 2는 남성 69.6%(R²=0.696, adj.R²=0.677), 여성 56.0%(R²=0.560, adj.R²=0.536)의 설명력을 보였다. COVID-19의 영향이 투입된 Model 2는 통제변수로 구성된 Model 1에 비해 남성은 0.115, 여성은 0.108의 R² 변화를 보였고,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 변인으로 구성된 Model 1에서 남성 청년의 우울에 대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보였다($\beta=-0.593$, p<.001). 월평균 소득($\beta=-0.367$, p<.001), 연령($\beta=0.357$, p<.001), 혼자 생활한 기간($\beta=-0.319$, p<.001), 과부담 부채($\beta=0.299$, p<.001), 주관적 계층 인식($\beta=-0.182$, p<.001)이 우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 청년의 경

우, 과부담 부채($\beta=0.485$, p<.001)가 가장 큰 예측력을 보였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관계 만족도($\beta=-0.391$, p<.001), 주관적 계층 인식($\beta=-0.137$, p<.05)이 여성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Model 2는 Model 1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COVID-19로 인한 고용에서의 변화, 소득에서의 변화, 감정의 변화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COVID-19로 인해 실직이나 노동시간 감축 등 고용의 변화가 있는 집단이 변화가 없는 집단보다 우울하였으며($\beta=0.145$, p<.001), COVID-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심할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290$, p<.001). 남성 청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한 감정의 변화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고용상의 변화($\beta=0.189$, p<.05)와 감정상의 변화($\beta=-0.173$, p<.01)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성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소득에서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Model 1과 Model 2의 설명력 변화를 고려할 때 COVID-19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가 1인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차에 따라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종모델인 Model 2에서 남성과 여성 청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과부담 부채와 가족관계 만족도,

COVID-19로 인한 고용변화였다. 특히, 과부담 부채는 여성 청년집단에서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였으며 ($\beta=0.452$, $p<.001$), 남성 청년에 있어서도 가족관계 만족도($\beta=-0.393$, $p<.001$)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beta=0.366$, $p<.001$). 이처럼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부채 부담은 이들의 높은 우울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성 청년 집단에서 가장 큰 예측력을 보인 변수로($\beta=-0.393$, $p<.001$) 여성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beta=-0.336$, $p<.001$).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Model 2에서 성에 따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양상을 보인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성집단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월평균 소득, 혼자 생활한 기간, COVID-19로 인한 소득변화였다. 남성 청년은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beta=0.345$, $p<.001$),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beta=-0.301$, $p<.001$).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beta=0.283$, $p<.001$),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 폭이 클수록 우울하였다($\beta=-0.290$, $p<.001$). 남성 청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 청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관적 계층 인식과 COVID-19로 인한 감정변화였다. 여성 청년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낮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beta=0.287$, $p<.001$) COVID-19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감정이 변화한 폭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beta=-0.173$, $p<.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위기상황이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성차(gender difference)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실시된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남성 청년 198명, 여성 21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요인으로 구성한 Model 1과 COVID-19의 영향을 고용, 소득, 감정의 변화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Model 2를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로 인한 고용, 소득, 감정의 변화는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제 변인으로 구성된 Model 1보다 COVID-19의 영향으로 구성된 Model 2는 청년 우울에 대해 남성 청년은 11.5%, 여성 청년은 10.8%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COVID-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감정상의 부정적 변화가 우리 사회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우리 사회 청년의 우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청년 시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20].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는 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외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21]. 이런 스트레스 사건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누적된 긴장으로 인해 우울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삶까지 피폐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청년의 COVID-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COVID-19의 하위 예측 요인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 COVID-19로 인한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축 등 고용변화가 있는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의 변화는 청년의 경제적 독립이나 자아실현의 기회, 소속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제감과 고립감을 심화시켜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22]. 2020년 '서울청년실태조사'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해 청년 10명 중 4명이 근로시간 단축, 고용 취소나 해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COVID-19 상황에서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청년세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17]. 그러므로 COVID-19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COVID-19 상황에서 청년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고용' 분야를 선택했다는 보고와 같이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청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청년지원 정책과 같이 청년

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19]. 또한, 취업장려금 지원, 면접 및 직무역량 지원,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청년의 우울 예측 요인의 성차(gender difference)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COVID-19 영향 요인을 투입한 Model 2에서 하위요인 중 COVID-19로 인한 소득변화는 여성 청년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성 청년에게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된 월평균 소득이 남성 청년에게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의 폭이 클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남성 청년의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는 청년의 우울을 조사한 송인한 외(2019)의 연구에서 소득이 남성 청년에게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남성 청년의 우울에 대해 소득은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 청년에게 소득의 감소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사회지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우울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24]. 이와 함께 통제요인에서 혼자 생활할 기간이 길수록 남성 청년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혼자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남성 청년은 여성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다는 보고와 같이[25],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기존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 청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제시한 고용 안정을 통한 소득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감소 폭이 큰 저소득, 비정규직, 비상근직, 일용직 청년을 중심으로 COVID-19 위기 상황에서 소득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COVID-19 이후 감정변화는 여성 청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COVID-19 이후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지각할수록 여성 청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졌다. 박상미(2020)는 COVID-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 고찰을 통해 COVID-19가 대유행으로 높은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 우울감뿐만 아니라 범불안장애, 강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COVID-19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26]. 또 문정화 외(202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COVID-19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27]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한 부정적 감정변화에 여성 청년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여성 청년의 COVID-19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챗봇 상담 애플리케이션 등 청년세대에게 익숙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우울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28].

이러한 COVID-19의 영향과 더불어 본 연구의 통제요인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하는 것은 청년 우울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 과부담 부채가 우울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우울에 대해 가장 큰 예측력을 보였다. 하랑경 외(2020)의 연구에서도 청년의 자산대비 상황이 어려운 과부담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인 것과 일관된 결과였다[15]. 이처럼 청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거나 상환 여력의 부족으로 재정적 압박이 심해질 경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청년의 부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가구주의 자산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것과 같이[13] 자산 수준이 낮고 학자금대출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채 부담을 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과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과 컨설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통제요인 중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청년 모두에게서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청년이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8], 가족과의 관계는 청년들의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1인 가구로 독립한 청년일

지라도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강화 프로그램이 청년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우울 수준은 남녀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서도 여성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보고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성 청년의 우울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19~34세의 청년집단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확대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관계의 단절 정도가 높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용과 수입에서의 변화가 남성 청년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후속연구를 통해 COVID-19가 성에 따라 우울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장기적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대다수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도시 거주 청년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소도시를 포함한 지방 거주 청년의 우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규모별 비교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복지실태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의 비교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후속연구에서 1인 가구 청년과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과의 우울 수준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년의 우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요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연구모형에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다양한 변수 투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변인 구성에서 COVID-19 위기상황 요인으로 투입한 고용의 변화요인은 COVID-19로 실직, 휴직 등 고용 상태의 변화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이는 COVID-19에도 안정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를 위한 것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용 상태 변화 양상에 따라 우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COVID-19 감정변화요인은 1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감정변화를 묻는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한다면 조사결과의 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청년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샘플을 확보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이론구축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Y. Lim & K.M. Seok. (2020.10.24.). *Beyond 'Corona Blue' to 'Corona Red'... 40% of Korea and the US are at risk*, Joongangillbo. <https://news.joins.com/article/23902379>
- [2] J. K. Park. (2021.7.6). *8 out of 10 adults "suffering from depression due to Corona"*.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5_0001500701&clID=13001&pID=13000
- [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2021.4.5). *Suspicion of "mood disorder" disease when mood or emotions change due to stress - Exceeded 1 million patients with "mood disorder"*.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06583>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Results of the "Corona 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2
- [5] Statistics Korea. (202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heckFlag=N
- [6] T. Y. Gong, J. K. Park, K. S. Yang & D.E. Choi. (2020.6.10.). *Even the needle hole is blocked. Youth unemployment 'pandemic'*. Hankyung.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1032911>
- [7] I. H. Song, K. W. Lee & J. H. Jeong (2019). Problem Drinking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5(1), 59-70. DOI : 10.22900/kphr.2019.45.1.006
- [8] J. H. Jang & Y. J. Kim. (2016). *A study on young single female-headed households in Seoul and policy implicatio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Research Project Report. 1-226.

- [9]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https://jumin.mois.go.kr/
- [10] Statistics Korea. (2020). *Single-Person Households Reviewed By Statistics 202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17
- [11] G. S. Byun. (2021). *A year of Corona, the life of 20s youth in numbers*. Welfare Issue Today, Seoul : Seoul Welfare Foundation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1.do
- [12] M. A. Sung, M. J. Chin, Y. E. Chang, & S. H. Son. (2020). Changes in Daily Life and Perceived Str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5(3), 3-20.
- [13] S. O. Kang & C. K. Han. (2018). A Study on Effects of Youth Householder's Assets on Life Satisfaction: Test of a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4), 195-220.
DOI : 10.16999/kasws.2018.49.4.195
- [14] Y. J. Kim & I. K. Gwak. (2020). Exploratory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epress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5(4), 241-250.
DOI: 10.35216/kisd.2020.15.4.241
- [15] R. K. Ha, H. W. Sim, K. H. Kim, & S. N. Park. (2020). The Effect of Debt on Depression in Young Adul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4), 295-331.
DOI: 10.15709/hswr.2020.40.4.295
- [16] H. J. Yang. (2020).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emo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elasticity of college freshmen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3), 75-82.
DOI: 10.17703/JCCT.2020.6.3.75
- [17] W. S. Kim. (2021). *Labor instability, youth anxiety*, Seoul : Seoul Welfare Foundation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1.do
- [18] C. S. Park. (2019). A Study on Changes in Wage Differences in First Jobs between New Vocational College Graduates and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9(2), 143-172.
DOI : 10.37926/KJIR.2019.06.29.2.143
- [19] S. Y. Kim (2018).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single household youth,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March 11-16
- [20] S. O. Kang, W. H. Cho, & M. Y. Um. (2019). Feelings of confidence in performing developmental tasks of youth among single youth households: Its latent profiles and economic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0(2), 53-81.
DOI : 10.16999/kasws.2019.50.2.53
- [21] Y. Lavee, H. I. McCubbin & J. M. P. Patterson. (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4), 811-825.
- [22] S. Y. Im & T. H. Kim.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of unemployed you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1), 51-73.
- [23] E. J. Lee. (2021). *France's youth support policy for under 25 years old*. Seoul : Seoul Welfare Foundation.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1.do
- [24] J. Y. Kim. (2021).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Income and Depression: Social Support As an Amplifying Factor.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4(1), 25-46.
- [25] H. J. Noh. (2018). Social Relationship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2), 71-102.
DOI: 10.15709/hswr.2018.38.2.71
- [26] S. M. Park. (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mong popul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7(5), 83-91.
DOI: 10.14367/kjhep.2020.37.5.83
- [27] J. W. Moon, S. J. Kim & K. O. Seong.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hobia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285-307.s
DOI: 10.16881/jss.2021.01.32.1.285
- [28] S. T. An & H. N. Lee. (2021) Exploratory Study on How and Why Young and Middle-aged Adults Disclose Depressive Feelings to Othe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Social Norm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2(1), 12-23.
DOI: 10.12799/jkachn.2021.32.1.12

이인정(In-Jeo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회복지

· E-Mail : mirrang@naver.com